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가르침을 바로잡으신 예수님(1)

- 읽을 말씀 마 5:43-48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동해복수법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중 가장 난해한 구절인 42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가르침을 어떻게 바로잡으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율법의 완전한 뜻을 보여준 여섯 가지 반제 중 마지막입니다. 다른 반제들보다 유대교의 해석이 얼마나 율법의 본의에서 떠나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또, 본문은 가장 차원이 높고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잘 소화하여 자연적인 본능을 뛰어넘고 사랑의 하나님을 닮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① 유대교의 잘못된 가르침!-“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마 5:43)”

이 구절의 전반부는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것이고, 후반부는 구약성경에 없습니다.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구약에 나오는 구절들(신 7:2, 시 139:21-22 등)에 근거한 추론일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랍비들은 이 구절들 때문에 “나의 이웃은 나의 민족과 종교에 속한 동료 유대인 즉 나의 친지와 친척이다. 율법은 낯선 사람이나 원수에 관하여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나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나의 원수를 미워하라는 허락 혹은 명령으로 까지 간주되어야 한다.” 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전체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시편도 개인적인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적인 원수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근거로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이 구약의 요약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모

세오경 어디에도 원수에 대해 원한을 품으라고 지시한 부분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본문의 첫 구절에서 인용한 원래의 구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레 19:18).”**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구절 안에 원수를 갚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절은 유대인만 사랑하고 이방인은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증거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적힌 같은 장에 **“거류민을 ... 자기 같이 사랑하라(34절).”**는 구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절대 유대인만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랍비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어이없게도 유대인에 대한 것으로 해석했으며, 나아가서, “네 원수를 미워하라.” 는 적대적인 결론까지 끌어냈습니다. 그들의 이런 가르침은 율법과 완전히 대립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잠 24:17).”** 라는 구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뿐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서 유대교의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30-36)로 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편협한 이웃에 대한 관념을 깨고 “너희들이 미워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인도 바로 너희 이웃이다” 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슬프게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웃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들과 같은 면이 있지 않나요? 우리도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고 고쳐야 할 것입니다.

② 예수님의 바른 가르침!

하나님은 도덕에 관한 이중적인 기준(이웃을 위한 것, 원수를 위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랍비들이 덧붙인 “네 원수를 미워하라” 는 말을 율법에 대한 터무니없는 왜곡으로 일축하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율법의 계명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곳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예수님은 제6계명에서 자제심을 잃고 분노하거나 욕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21-26절), 동해복수법에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38-42

절).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보복하지 않는 것을 넘어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는 말씀을 덧붙이신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보여주듯, 우리의 이웃은 원수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원수에게 복수하려고 하거나 하나님께 신원해주기를 간구하는 대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눅 23:34, 행 7:60).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위해나 편견이 원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물론 이 명령들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머릿속에서 이 일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몰아내고 반드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여 가장 위대한 승리를 주님께 안겨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③ 우리가 원수도 사랑해야 하는 이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 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문자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같이 한즉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47절)**”라는 말씀에서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므로 원수 사랑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임이 입증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식이 부모를 닮듯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입니다(45절).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뒤 의도적으로 ‘세리’와 ‘이방인들’을 언급하셨습니다(마 5:46-47).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도덕적으로 가장 열등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제일 멸시한 자들이 이 두 그룹입니다. 명목상의 신자인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원수와 핍박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세리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자식들인 이방인도 자기 형제에게는 문안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형제에게만 문안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보이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한편,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것에 이미 나타나 있듯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영광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정이고, 참 영광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기 위한 강력한 소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육적이고 세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실 뿐 아니라 악인과 죄인도 선대하시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닮기 원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와 같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명령이 부담스러운 요구가 아니라 지극히 큰 영광이라고 우리의 인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 나눔과 적용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정입니다. 나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나누어 봅시다.